

“낙하산은 안된다”...광주 정치신인들 잇단 반발

더민주 전략공천 마찰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지역 일부 선거구 전략공천 조짐에 정치신진 등 출마자들이 반발하는 등 전략공천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역의원, 예비후보들이 대거 국민의당으로 옮기면서 양적 빈곤에 처한 더민주로서는 전략공천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갈등을 방지할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광주 광산구갑에 출마하는 더민주 임한필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낙하산 공천이나 다름없는 전략공천 방침은 정책과 인물을 승부를 보려는 저의 순수한 의지를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 선거구에서는 허문수 전 광주시의회의원을 포함한 2명이 더민주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영입 1호로 알려진 이용빈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이사장이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임 예비후보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이 이사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민 구청장이 축사 중 ‘눈을 많이 흘려서 팔꿈치가 아프다. (의사인)이

김상곤·소병철 투입설

20% 컷오프 무산 가능성

윤병 원장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관련 영상을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그동안 행사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언급을 삼가던 태도에 비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정치신진들 모임인 ‘정치혁신 한걸음 더’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더민주의 선거전략은 밀실과 정치공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역의원, 총선 출마자 등 회원 모두 더민주 잔류를 결심한 한걸음더는 “당 지도부가 부적격 인사 영입이나 소위 거물급 인사의 낙하산 투입으로 광주 선거를 돌파하려 한다는 풍문이 지역을 뒤덮었다”며 “아래로부터 당 위기를 극복하고자 활동을 시작한 당 소속 광주 시·구의원 연석회를 비롯한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을 광주 서구를 전청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대항마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의 광주 출마설 등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는 상황을 감안한 성명이었다.

더민주 전략공천 마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중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역구 및 공천심사를 공관위로 일원화하고 현행 지역구 공천 결정권을 홍창선 공관위원장에게 위임하면서 당내 친노와 구지도부가 불분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물러나기 전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시스템 공천’에 대해 “촉박한 경선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의 혁신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며 사실상 문 전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만들었던 혁신안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전했다.

또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컷오프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적용을 반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옛 지도부들은 “문 전 대표가 이렇게 했었다면 비노계가 반발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스템 공천보다 김 대표 개인이 공천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사실상 공천권을 1인 체제로 집중하고 시스템 공천을 백지화 시키면서 공천과정에서 친노진영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내 분란 소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실전 끝 자리 박차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관련 서청원 최고위원과 설전을 하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공천을 위반 용납 못해” 서청원 “김대표 용납 않겠다”

새누리당 친박·비박 충돌

4·13 총선 공천 물음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주류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가 상향식 공천 사수 의지를 드러내자,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공천’과 ‘외부 영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친박계가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다.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부 갈등의 마그마가 표층을 뚫고 본격적으로 분출했다. 공천 완료 시점까지 끝없이 계속될 지란한 갈등의 ‘신호탄’인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을

겨냥한 친박계 지도부의 비판성 발언이 잇따라 자식심한 듯 정면으로 반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서 공천관리위가 당헌 당규의 입법 취지에 벗어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천 료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략공천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려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러나 친박계 역시 이 같은 김 대표의 경고를 사실상 무시하고 완전 상향식 공천 원칙에 ‘메스’를 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들의 얘기에 대해 당 대표가 자꾸만 이런 궁지러루하고 있다. 자칫 당 대표 개인 생

각이 공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조금 전 김 대표가 말한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김 대표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김 대표가 “공관위가 당헌·당규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박하자, 서 최고위원도 “그런 언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대응하는 등 양측의 대립은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달았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향식 원칙에서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공개적으로 친 것이고, 친박계는 이러한 김 대표의 계획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현역 컷오프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

국민의당 컷오프 갈등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의 ‘현역 컷오프(예비심사에 의한 낙선)’를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이상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이같은 기류속에 천 대표는 “당 대표로서 개인 생각이며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다”며 한발 물러서 현역 컷오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4·13 총선에서의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와 관련, “의원이 100명 이상 되는 정당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현재 국민의당에 현역 의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 부분이 다른 당과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언급해 현역 의원 인위적 물갈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많은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하다고 본다”고

의원들 반발에 한발 물러서

이상돈 “현역의원 많지 않다”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도 “국민의당은 현역의원이 많지 않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희망은 어느 정당이나 모두 높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다. 어떤 정당이라도 현역 의원들은 응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이날 발언은 천정배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광주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컷오프를 시사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천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컷오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호남 현역 의원의 ‘물갈이’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당내에서는 천 대표가 ‘호남 물갈이’

의지를 보이면서 광주지역 현역 의원들과 갈등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천 대표는 당초 이날 정치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고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발표를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천 대표는 “(현역 의원 평가에 의한 컷오프)는 당대표로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당 공식기구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면서 “최종 결정된 것 아니다.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다”면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역 의원들의 천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한길-이상돈 공동선거위원회 체제에서 천 대표의 이같은 현역의원 컷오프 주장이 관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윤철 공직후보자적성심사위원장과 공천 규칙을 만드는 당규제정TF 및 경선규칙TF를 주도하는 박주현 최고위원이 천정배 대표가 주도한 국민회의쪽 출신이라는 점이 컷오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족쇄 풀린 박지원 “무소속으로 야권 통합 전력”

더민주·국민의당 러브콜

18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파기 환송 판결로 박지원 의원의 발을 묶었던 족쇄가 풀리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의원의 20대 총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으며 야권 분열 국면에서의 역할 등 정치적 위상도 다시 커졌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확히 3년8개월 만에 그 굴레를 벗었으며 13년 동안 표적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선택하지 않고 무소속의 길을 가겠다”며 “중립적 위치에서 야권 통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양당 지도부는 (분열로 인한) 참패 후 어떤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최소한 연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무소속 출마 입장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러브 콜이 이어졌다. 박 의원의 DJ(김대중 전 대통령) 및 호남 상징성이 야권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박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사뭇귀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보였으며 주승용 원내대표도 “축하하고 국민의당과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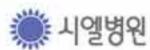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과/라식/라섹/백내장/녹내장/안과/눈성형/노안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